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의 상호작용효과*

오현준(동신대학교 박사) · 정명규(경희대학교 박사) · 정성필** (동신대학교 부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최근 가증되고 있는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감소 및 대처, 그리고 중재전략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의 하나인 스노우볼 표집을 통해 45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응답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최종 360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IBM SPSS 26.0과 IBM AMOS 21.0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 입각한 측정모형분석, Cronbach's α 산출에 입각한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 및 상호작용변수를 활용한 상호작용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들의 검증결과와 도출된 결과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회복탄력성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다. 둘째, 직업윤리의식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다. 셋째,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

* 본 연구는 오현준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논문임

** ohjcjl@naver.com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달라진 체육시설 경영환경은 관련업 종사자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로 인해 체육시설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직무환경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시설 종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 및 생리적 측면의 반응을 의미한다(정갑연, 박천식, 이시환, 2018; 한광현, 2003; Judge & Colquitt, 2004). 그리고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만족, 몰입, 소진, 이직의도 등과의 유의미한 관계 속에서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더불어 직무스트레스가 학습자들의 교육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초로 할 때,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재전략마련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소영호, 조현익, 양재근, 2009; 송명숙, 2015; 은종원, 여인성, 2013; 이승영, 김덕호, 2019; 이진희, 임진형, 2017; 최승국, 노영휘, 2021; 최형성, 2015; 하제현, 최원석, 2018).

이런 가운데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을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에 관한 대표적인 예측변수이자 주요한 심리적 중재전략으로서 작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유연한 반응을 통해 과중

한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곽경화, 백승선, 2020; 김민석, 문혁준, 2016; 김영진, 강민규, 정명규, 2023; 양연희, 이상철, 2018; 최공집, 정명규, 2020).

여기서 말하는 직무스트레스 중재전략으로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고난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적응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능력, 즉 고난과 역경을 대처하는 개인의 정신적 측면의 저항력을 의미한다(송은일, 이종호, 2018;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오상훈, 2020; Garmezy, 1993; Luther, Cicchetti, & Becker, 2000). 그리고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자들은 개인의 정신적 저항력이라는 이러한 회복탄력성이 다양한 성향 및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다면체적인 심리적 능력으로 제안하며, 이를 크게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 등과 같은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신우열 등, 2009; 유생열, 2010; 최공집, 정명규, 2020; Block & Kremen, 1996; Luther et al., 2000; Olsson, Bond, Burns, Vella-Brodrick & Sawyer, 2003; Reivich & Schatte, 2002; Werner & Smith, 1993).

회복탄력성이 가진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주요한 심리적 중재전략으로서 갖는 유의미한 중요성은 실증적인 관점에서 해당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한 아래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백유성, 장영희와 김유정(2017)은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부적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정갑연 등(2018)은 회복탄력성이 증권회사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조재영(2018) 또한 감정노동 서비스 종사자들의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경섭과 정명규(2021), 이재오(2021)는 태권도장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유효성을 규명하였으며, 이밖에도 체육시설 종사자들과 직업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보육교사, 유아교사, 장애학생 지도교사 등 교육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미림, 정용충, 2021; 김민석, 문혁준, 2016; 이진희, 임진형, 2017; 좌승화, 오정희, 2019; 표윤희, 2019)들은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히고 있다.

한편, 관련 선행연구자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 또는 성향은 회복탄력성 및 직무스트레스와 상호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손덕순과 문영희(2011), 추병완(2018), 김은정(2013), 임효순과 이홍직(2015) 등은 개인 특성 및 성향에 따라 회복탄력성 및 직무스트레스가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직무에 관한 개인 특성 및 성향의 하나인 직업윤리의식 또한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주효한 예측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가 특장요소들에 의해 그 수준이 달리질 수 있다는 사실(이상호, 김동현, 2017)에서 직업윤리의식과 회복탄력성,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간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관계규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할 때,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직업윤리의식은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윤리의식(Work ethics consciousness)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 태도, 의미이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 직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대치가 반영된 보편적 행동규범을 뜻하는 것으로(유나정, 2020), 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있어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행동규범을 뜻한다.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직업윤리의식과 유사한 관점의 직업소명의식(박헌재, 2019), 도덕적 용인(민기, 박철민, 2021), 주관적 규범(정원식, 윤성준, 2016), 도덕 정체성(황요일, 황진수, 2022) 등의 조절효과를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와 더불어 교사들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그들의 회복탄력성에 있어 주요 선행요소임을 밝힌 추병완(2018)과 유아교사들의 교직윤리의식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고한 이진희(2018), 윤리의식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박종두와 신영일(2022) 등과 같이 윤리의식과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규명에 관한 선행연구(김성수, 이진성, 김웅준, 이원현, 정이수, 천수정, 2012; 박서영, 2014; 장

미정, 2021)들은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예상되는 직업윤리의식의 조절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서술된 내용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유용한 중재전략 마련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관계에 대한 개인의 직업윤리의식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는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예상되며, 특히, 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당변인들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연구모형과의 차별화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의 역할,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진행될 후속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의 필요성을 통해 밝힌 내용들을 기초로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특성에 맞는 유용한 직무스트레스 중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및 상호작용분석(interaction effect analysis)을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각각의 영향력 및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향후 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관련 후속연구에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은 회복탄력성이라는 고난과 역경을 대처하는 개인의 정신적 저항력(김영진 등 2023; 신우열 등, 2009; 오상훈, 2020;

Garmezy, 1993; Luther et al. 2000)이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유발되는 심리 및 생리적 측면의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주요한 예측변수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직종의 대상들을 기초로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김경섭, 정명규, 2021; 김미림, 정용충, 2021; 김민석, 문혁준, 2016; 백유성 등, 2017; 이재오, 2021; 이진희, 임진형, 2017; 정갑연 등, 2018; 조재영, 2018; 좌승화, 오정희, 2019; 표윤희, 2019; 황연경, 2015)들은 최근 가중되고 있는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서도 회복탄력성이 유의미한 중재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유의미한 관계(김성수 등, 2012; 박종두, 신영일, 2022; 이진희, 2018; 추병완, 2018) 속에서 개인의 심리요인들 간의 관계가 특정요소들에 의해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상호, 김동현, 2017)에 입각하여 볼 때,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관련 선행연구(김은정, 2013; 손덕순, 문영희, 2011; 임효순, 이홍직, 2015; 추병완, 2018)들이 밝힌 바와 같이 개인특성 또는 성향에 따른 접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내용에서 개인의 윤리적 특성 및 성향에 하나로서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김은희, 이영주, 2019; 박미경, 2021; 박미경, 이홍재, 2021; 박서영, 2014; 박종두, 신영일, 2022; 엄영숙, 2014; 이진희, 2018; 장미정, 2021)를 맺고 있는 직업윤리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향후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중재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때 직업윤리의식과 유사한 관점의 개인의 윤리적 특성 또는 성향이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민기, 박철민, 2021; 박헌재, 2019; 장미정, 2021; 정원식, 윤성준, 2016; 황요일, 황진수, 2022)들은 회복

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직업윤리의식 또한 작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인 측면에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실증적인 측면에서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 간의 다각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회복탄력성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2. 직업윤리의식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직업윤리의식과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간의 다각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관계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온라인 설문 플랫폼의 하나인 google forms를 통해 2022년 8월 ~ 9월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45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이 가진 제한점을 고려하여 응답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항목은 <7, 매우 그렇다>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와 같은 문항들을 추가하였고, 요청과는 다른 상이한 응답 자료에 대한 정제 과정들을 거쳐 최종 360부를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성별에서 남자 272명(75.6%), 여자 88명(24.4%)로 확인되었다. 다음 연령에서 20대 160명(44.4%), 30대 136명(37.8%), 40대 61명(16.9%), 50대 3명(0.8%)으

로 확인되었다. 다음 결혼 여부에서 미혼 221명(61.4%), 기혼 139명(38.6%)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근무업종에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10명(2.8%), 요가 및 필라테스 41명(11.4%), 유소년 수영 및 체육시설 107명(29.7%), 체대입시 81명(22.5%), 체육도장 98명(27.2%), 헬스클럽 및 개인 PT샵 23명(6.4%)로 확인되었다.

2. 검사도구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도구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검사도구인 설문지의 각각의 설문문항은 자기보고식 평가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각각의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설정하였다.

검사도구 설문지의 출처 및 구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 업종 등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회복탄력성 척도는 신우열 등(2009)이 탄력성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Reivich & Shatte, 2002; Seligman, 2002; Wiemann, 1977) 참조하여 재구성하고, 김소희(2017)와 곽도훈(2019)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초기 회복탄력성 척도는 3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에 따른 변수정제 과정을 거쳐 통제성 6문항, 긍정성 6문항, 사회성 6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셋째, 직업윤리의식은 다차원 직업윤리 부문(MWEP)을 기초로 Meriac, Woehr, Gorman와 Thomas(2013)에 의해 짧은 형식으로 개발 및 검증된 MWEP-SF 척도를 유나정(2020)이 번역하여 사용한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초기 직업윤리의식 척도는 7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변수정제 과정을 거쳐 낭비시간 4문항, 일의 중심성 4문항, 도덕윤리 4문항, 여가

4문항, 지연만족도 4문항, 노력 4문항, 자립 4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넷째,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Parker와 Decotiis(1983)의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NIOSH 한국어판 조사표를 바탕으로 고기철(2012)이 수정·보완하고 홍동욱과 이석준(2020), 이재오(2021)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초기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2 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에 따른 변수정제 과정을 거쳐 생리적 스트레스 3문항, 심리적 스트레스 3문항 등 총 6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통계처리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응답(Self-administrated method)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IBM SPSS 26.0과 IBM AMOS 21.0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및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등을 시행하였다. 둘째,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의 측정모형분석(measurement model analysis)과 Cronbach's α 산출에 입각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및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차원성이 규명된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의 구성요인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넷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 간의 다각적인 관계규명을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 및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term)를 활용한 상호작용분석(interaction effec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타당성 및 신뢰성

1) 타당도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사용된 척도인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의 측정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

먼저, 측정모형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표준화된 잔차 공분산값(standardized residual covariances), MI(modification indices) 등에 근거한 변수제거 작업이 실시되었으며, 이후 CFA 모델의 모형적합도에 대한 검증기준 CFI, TLI(이상 $\geq .90$), SRMR, RMSEA(이상 $\leq .08$) 등을 충족하는 CFI= .933, TLI= .926, SRMR= .023, RMSEA= .070 값을 검출하였고, 도출된 결과에 따라 이 연구에서 사용된 CFA 모델의 모형적합성이 충족되었음을 추정하였다(Garrido, Abad & Ponsoda, 2016; Schermelleh-Engel, Moosbrugger & Müller, 2003; Steiger, 1990). 다음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도출된 결과들을 기초로 분산추출지수(AVE) 및 개념신뢰도(CR) 추출을 위한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결과가 .636 ~ .783과 .879 ~ .947 수준의 값들을 검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집중타당성이 충족되었음을 추정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마지막으로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 3>에 제시된 상관계수의 제곱과 AVE 간 값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 최대 .780의 제곱인 .608이 AVE 지수 최소 .636 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기초로 판별타당성이 충족되었음을 추정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표 1. 측정모형분석에 근거한 CFA 분석 결과

변수명	요인명	item	b	β	t	AVE	CR
회복 탄력성	통제성	r1	1	.958		.750	.947
		r2	1.008	.963	45.565***		
		r3	.968	.960	44.872***		
		r4	.939	.935	38.730***		
		r5	.943	.933	38.465***		
		r6	.939	.929	37.612***		
	긍정성	r7	1	.895		.636	.913
		r8	1.107	.936	29.632***		
		r9	1.033	.928	28.931***		
		r10	1.029	.879	25.189***		
		r11	1.095	.904	27.030***		
		r12	1.062	.898	26.573***		
	사회성	r13	1	.872		.682	.928
		r14	1.067	.909	25.694***		
		r15	1.105	.926	26.812***		
		r16	1.102	.926	26.795***		
		r17	1.109	.926	26.772***		
		r18	1.106	.922	26.509***		
직업 윤리의식	낭비시간	j1	1	.921		.717	.910
		j2	1.078	.952	34.756***		
		j3	1.048	.951	34.636***		
		j4	1.004	.923	31.178***		
	일중심	j5	1	.959		.764	.928
		j6	.938	.933	38.434***		
		j7	1.002	.965	46.299***		
		j8	.961	.951	42.448***		
	도덕윤리	j9	1	.958		.775	.932
		j10	1.035	.964	45.656***		
		j11	1.020	.955	43.048***		
		j12	1.027	.968	46.959***		

직업 윤리의식	여가	j13	1	.926			
		j14	1.058	.951	35.325***		
		j15	1.026	.929	32.426***	.717	.910
		j16	1.070	.948	34.900***		
	자연만족도	j17	1	.946			
		j18	1.014	.943	37.482***		
		j19	.941	.925	34.634***	.708	.906
		j20	.956	.943	37.424***		
	노력	j21	1	.936			
		j22	.979	.953	37.623***		
		j23	1.013	.945	36.390***	.750	.923
		j24	1.032	.965	39.849***		
자립	j25	1	.944				
	j26	1.030	.967	42.559***			
	j27	.989	.961	41.133***	.783	.935	
	j28	1.002	.951	39.005***			
직무 스트레스	생리적 스트레스	s1	1	.930			
		s2	1	.957	35.597***	.723	.887
		s3	.917	.896	28.918***		
	심리적 스트레스	s4	1	.928			
		s5	1.078	.898	29.047***	.707	.879
		s6	1.062	.964	36.405***		
$\chi^2(df) = 3310.551(1208)$, CFI = .933, TLI = .926, SRMR = .023, RMSEA = .070							

*** $p < .001$

2) 신뢰도

타당도 검증결과를 기초로 재구성된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Cronbach 's α 계수 추출을 통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고, 각 척도들의 신뢰도는 보편적 기준인 .70 이상을 근거로 문항 간 내적일관성의 판단하였다. 먼저, 회복탄력성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통계성 = .981, 긍정성 = .965, 사회성 = .968 등으로 검출되었고,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추정하였다. 다음 직업윤리의식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낭비시간 = .966, 일중심 = .975, 도덕윤리 = .980, 여가 = .967, 자연만족도 = .968, 노력 = .973, 자립 = .977 등으로 검출되었고,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추정하였다.

마지막 직무스트레스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생리적 스트레스= .948, 심리적 스트레스= .947 등으로 검출되었고,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추정하였다.

표 2. 신뢰도 분석 결과

변 수	요 인	Cronbach' s α
회복탄력성	통제성	.981
	긍정성	.965
	사회성	.968
직업윤리의식	낭비시간	.966
	일 중심	.975
	도덕/윤리	.980
	여가	.967
	자연만족도	.968
	노력	.973
	자립	.977
	직무스트레스	생리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947

2. 상관관계

단일차원성이 검증된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 하위 구성요인들을 대상으로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을 통해 다중공선성 이슈를 검토하였다<표 3>.

상관분석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 -.741 ~ .780 수준에서 모든 구성요인 간의 통계적 유의한 상관계수가 검출되었고, 보편적 검정기준(.80 이하)에 입각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다중공선성 이슈가 없음을 추정하였다.

표 3. 상관분석 결과

요인	a	b	c	d	e	f	g	h	i	k	j	l
a	1											
b	.707*	1										
c	.725*	.772*	1									
d	.697*	.667*	.664*	1								
e	.697*	.668*	.697*	.769*	1							
f	.640*	.573*	.643*	.660*	.729*	1						
g	.632*	.578*	.615*	.626*	.659*	.677*	1					
h	.721*	.624*	.683*	.696*	.778*	.694*	.724*	1				
i	.719*	.702*	.711*	.743*	.767*	.724*	.700*	.775*	1			
j	.673*	.604*	.656*	.695*	.757*	.684*	.699*	.780*	.777*	1		
k	-.741**	-.664**	-.696**	-.685**	-.714**	-.683**	-.664**	-.731**	-.712**	-.709**	1	
l	-.670**	-.626**	-.679**	-.631**	-.670**	-.700**	-.696**	-.647**	-.681**	-.627**	.735*	1

** $p < .01$

a. 통제성, b. 긍정성, c. 사회성, d. 낭비시간, e. 일 중심, f. 도덕/윤리, g. 여가, h. 자연만족도, l. 노력, j. 자립, k. 생리적 스트레스, l. 심리적 스트레스

3.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가설 검정에 앞서 설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의 경우, 앞선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미심리학회 제안기준을 토대로 카이제곱(χ^2)을 제외한 CFI, TLI, SRMR, RMSEA를 중심으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배병렬, 2017).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에 대한 검증기준 CFI, TLI(이상 $\geq .90$), SRMR, RMSEA(이상 $\leq .08$) 등을 충족하는 CFI= .977, TLI= .971, SRMR= .024, RMSEA= .071 값을 검출하였고, 도출된 결과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된 구조방정식모형 즉,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충족되었음을 추정하였다

(배병렬, 2017; Garrido et al. 2016; Schermelleh-Engel et al., 2003; Steiger, 1990).

표 4.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검증결과

구 분	$\chi^2(df)$	CFI	TLI	SRMR	RMSEA
측정치	143.190(51)	.977	.971	.024	.071
기 준	-	.90 이상	.90 이상	.08 이하	.08 이하

4. 가설검증

1)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 간의 다각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그림 1>.

검증결과의 상세설명으로, 첫째, 가설 1 “회복탄력성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는 경로계수($\beta=-.459$)의 통계적 유의성($p<.001$)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둘째, 가설 2 “직업윤리의식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는 경로계수($\beta= -.513$)의 통계적 유의성($p<.001$)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표 5. 인과관계 검증 결과

	경로	b	β	t	sig.
H1	회복탄력성 -> 직무스트레스	-.425	-.459	-4.519***	채택
H2	직업윤리의식 -> 직무스트레스	-.501	-.513	-5.108***	채택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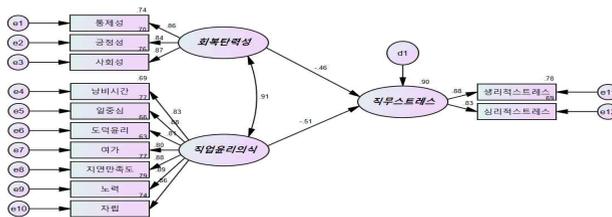


그림 1. 인과관계 검증 연구모형

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의 상호작용 효과

계속해서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직업윤리의식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분석이란 조절변수가 연속성의 매트릭 변수일 때 활용되는 분석법으로, 배병렬(2017)은 관련하여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직업윤리의식과 같이 연속변수를 평균이나 중위수로 집단을 구분하여 다중집단분석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연구에서 조절효과 검증과정으로서 상호작용 효과분석의 적절성을 제안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상호작용 효과분석에 대해 다양한 접근법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 Marsh 등이 제안하는 2번째 접근법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Marsh 등이 제안하는 2번째 접근에 따르면, 1번째 접근과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 및 외생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지표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된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Marsh 등이 제안하는 2번째 접근법에 따른 검증결과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6>, <그림 2>.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는 경로계수($b=-.301$, $\beta=-.325$)의 통계적 유의성($p<.01$)이 확인되었으며, 직업윤리의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역시 경로계수($b=-.546$, $\beta=-.562$)의 통계적 유의성($p<.001$)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이때 상호작용변수인 회복탄력성 \times 직업윤리의식 경로계수($b=.089$, $\beta=.163$)의 통계적 유의성($p<.001$) 또한 검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가설 3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표 6. 상호작용효과 검증결과

경로		b	β	t	sig.
H3	회복탄력성 -> 직무스트레스	-.301	-.325	-3.105**	채택
	직업윤리의식 -> 직무스트레스	-.546	-.562	-5.750***	
	회복탄력성 \times 직업윤리의식 -> 직무스트레스	.089	.163	4.451***	

*** $p<.001$,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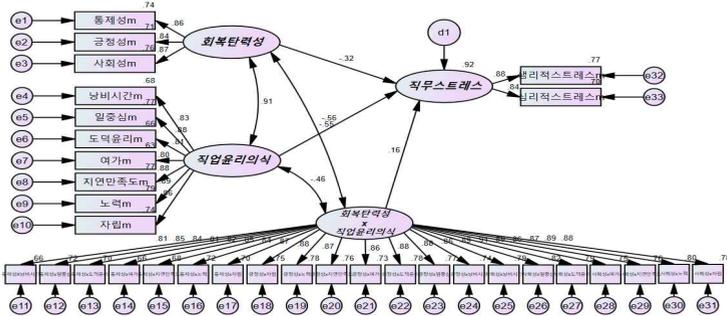


그림 2. 상호작용효과 검증 연구모형

IV. 논의

이 연구는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 간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관계규명을 통해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효과적인 중재전략 마련에 유의미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을 성취를 위해 본문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및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고, 이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가설 1은 경로계수($\beta=-.459$)의 통계적 유의성($p<.001$)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검증결과는 회복탄력성이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라 감소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결과로,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중재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그리고 그간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당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한 관련 선행연구(백유성 등, 2017; 정갑연 등 2018; 조재영, 2018)와 더불어 직접적인 측면에서 체육시설 종사자 및 직업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교육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경섭, 정명규, 2021; 김미림, 정용충, 2021; 김민석, 문혁준, 2016; 이재오, 2021; 이진희, 임진

형, 2017; 좌승화, 오정희, 2019; 표윤희, 2019)들은 추론한 내용의 타당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대표적인 중재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회복탄력성이라는 일종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신적 저항력이 직무스트레스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부정적 측면의 심리적, 생리적 반응(정갑연 등, 2018; 한광현, 2003; Judge & Colquitt, 2004)의 중재와 감소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체육시설 종사자들과 관련하여 회복탄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직종 또는 직무특성별로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김경섭, 정명규, 2021; 김미림, 정용충, 2021; 김민석, 문혁준, 2016; 백유성 등, 2017; 이진희, 임진형, 2017; 임경민, 김정희, 2022; 조재영, 2018; 좌승화, 오정희, 2019) 회복탄력성이 선천적인 특성이 아닌 교육과 학습, 훈련 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할 때(김경섭, 정명규, 2021; 김정훈, 2021; 백유성 등, 2017; 오선영, 노상충, 강민우, 서용원, 2015; 홍은숙, 2006; Daniel & Wassell, 2002; Dyer & McGuinness, 1996; Egeland, Carlson, & Sroufe, 1993; Luther et al., 2000),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개인 및 업무 특성에 맞는 유용한 회복탄력성 증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윤리의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가설 2는 경로계수($\beta = -.513$)의 통계적 유의성($p < .001$)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검증결과는 직업윤리의식 수준에 따라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직업윤리의식 또한 앞선 회복탄력성과 같이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유의미한 심리적 중재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그리고 유아교사(박서영, 2014; 이진희, 2018), 공무원(장미정, 2021), 사회복지사(박종두, 신영일, 2022; 엄영숙, 2014) 등을 대상으로 개인의 다양한 측면의 윤리의식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추론한 내용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수행된 관련 연구들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전략의 하나로서 직업윤리의식의 그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한 김태량과 김경화(2017) 등과 같이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직업윤리의식이 체육시설 종사자 개인의 직무스트레스에 있어서도 유의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박서영, 2014; 박종두, 신영일, 2022; 엄영숙, 2014; 이진희, 2018; 장미정, 2021).

이런 내용에서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유용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직업윤리의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특성에 맞는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적인 측면에서 직업윤리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윤리의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가설 3은 경로계수($b=.089$, $\beta=.163$)의 통계적 유의성($p<.001$)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검증결과는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그들의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이 상호작용효과 즉,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출된 결과를 해석해 보면,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때 직업윤리의식 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더욱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변인들의 조절효과에 대한 관련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직무몰입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공직윤리의식의 조절효과를 밝힌 장미정(2021)과 더불어 개인의 윤리적 특성 및 성향이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민기, 박철민, 2021; 박헌재, 2019; 정원식, 윤성준, 2016; 황요일, 황진수, 2022)들은 추론된 내용을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이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에 관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업윤리의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종사자 개인의 직업윤리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유효성이 증가할 수 있기에 그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 증진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고유의 직무특성을 고려한 직업윤리의식 제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와 관련하여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은 그에 대한 주효한 심리적 중재전략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때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이 가진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성이 단일적 측면을 넘어 상호적인 관점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회복탄력성 및 직업윤리의식과의 관계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이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개발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강경수, 김진환, 2011; 김정훈, 2021; 백유성 등, 2017; 오선영 등, 2015; 최보람, 김진현, 2018; 홍은숙, 2006; Daniel & Wassell, 2002; Dyer & McGuinness, 1996; Egeland et al., 1993; Luther et al., 2000)에서 연구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같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이 가진 유효성을 기초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직업윤리의식을 기초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덕 및 윤리적 행동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견해와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체육시설 고유의 직무 특성 및 환경에 따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회복탄력성 증진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최근 가증되고 있는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감소 및 대처, 중재전략 마련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의 하나인 스노우볼 표집을 통해 온라인 설문 플랫폼의 하나인 google forms를 이용하여 45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응답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최종 360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IBM SPSS 26.0과 IBM AMOS 21.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 입각한 측정모형분석, Cronbach's α 산출에 입각한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및 상호작용변수를 활용한 상호작용분석을 시행하였다.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와 그 결과에 기초한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회복탄력성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다. 둘째, 직업윤리의식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은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 대처 및 감소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의 유효성이 단일적 측면뿐 만 아니라 상호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향후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고유의 직무특성 및 환경에 따른 윤리의식 체고 프로그램과 연계한 회복탄력성 증진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연구는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간의 다각적 관계규명에 관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당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모형들과의 차별성을 기초로 체육시설 고유의 직무특성 및 환경에 따른 유용한 직무스트레스 중재전략 마련에 대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출된 결과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근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측면에서의 의미 있는 관련 후속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가 체육시설 종사자

들의 회복탄력성과 직업윤리의식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그들의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도출된 결과에 관한 추가적인 접근을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근거마련에 관한 폭넓은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 둘째, 이 연구가 설문지라는 양적 자료를 중심으로 회복탄력성, 직업윤리의식,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수행될 관련 연구에서는 인터뷰, 심층면담 등과 같은 다양한 질적 자료를 활용한 접근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셋째,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자(이진희, 임진형, 2017)들이 밝힌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가 학습자들의 교육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감성리더십, 직업윤리의식 이외에도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직무스트레스 중재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경수, 김진환(2018). 경비업 관련 직무종사자 직업윤리의식수준이 직무태도 및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8(3), 181-204.
- 고기철(2012). **호텔 조리 종사원의 성격유형이 직무스트레스 반응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곽경화, 백승선(2020). 유아교사의 마음챙김과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1233-1255.
- 곽도훈(2019). **태권도 지도자의 의사소통이 대학선수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기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섭, 정명규(2021). 태권도장 지도자의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조절효과.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2(4), 101-119.
- 김미림, 정용충(2021). 장애 영유아 교사의 감정도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19(3), 41-49.

- 김민석, 문혁준(2016).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완벽주의 성향, 근무환경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2), 53-73.
- 김성수, 이진성, 김웅준, 이원현, 정이수, 천수정(2012). 산악자전거 심판의 스트레스가 직업윤리의식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0(2), 13-21.
- 김소희(2017).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영진, 강민구, 정명규(2023). 태권도 선수들의 회복탄력성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감성리더십의 조절효과. **무예연구**, 17(2), 177-200.
- 김은정(2013).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연구**, 21(1), 31-40.
- 김은희, 이영주(2019).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식, 공감, 회복탄력성과 생명의료윤리의식과의 관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4(3), 308-315.
- 김정훈(2021). 호텔종사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학회**, 102, 79-100.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태량, 김경화(201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 628-643.
- 민기, 박철민(2021). 조직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용인의 조절효과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29(3), 123-147.
- 박미경(2021). 윤리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낙관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정책연구**, 21(1), 1-22.
- 박미경, 이홍재(2021). 윤리적 리더십이 도덕적 책무성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국정관리연구**, 16(2), 31-61.
- 박서영(2014). **유아교사의 조직윤리의식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종두, 신영일(2022).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

- 효능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3(5), 879-894.
- 박헌재(2019). 항공객실승무원의 비윤리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직무수행 의지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위반의 매개효과와 직업소명의식의 조절효과. **서비스경영학회지**, 20(2), 205-232.
- 배병렬(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담.
- 백유성, 장영희, 김유정(2017). 회복탄력성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BWF의 매개효과 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2(3), 1-19.
- 소영호, 조현익, 양재근(2009). 상업 스포츠센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0(2), 372-386.
- 손덕순, 문영희(2011).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Y시 전문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16, 48-69.
- 송명숙(2015).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직장 내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 간의 구조모형 분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유아교육연구**, 35(6), 377-396.
- 송은일, 이종호(2018). 대학태권도선수의 사회적지지가 운동스트레스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6(1), 459-468.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양연희, 이상철(2018).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4), 57-80.
- 엄영숙(2014).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이차외상스트레스 대처과정에 관한 연구: 고통 속에서 울타(啾啾)을 통해 나아가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오상훈(2020). 청소년 태권도 선수의 회복탄력성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1(2), 217-233.
- 오선영, 노상충, 강민우, 서용원(2015).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존중의 조직문화에 의한 회복탄력성이 조직구성원의 행복감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4), 829-854.

- 유나정(2020). **조직구성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직무몰입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유생열(2010). 초등학교 체육 자아 탄력성 및 자아 통제 개념구조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3), 245-259.
- 은종원, 여인성(2013). 비정규직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대한 구조 모형 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1(2), 115-128.
- 이상호, 김동현(2017). 일선 지역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경찰연구**, 16(3), 81-310.
- 이승영, 김덕호(2019).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스트레스학회**, 27(3), 215-223.
- 이재오(2021). **태권도 지도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 이진희(2018). 유아교사의 교직윤리의식과 전문성 발달수준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5), 179-201.
- 이진희, 임진형(2017).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2(4), 197-214.
- 임경민, 김정희(2022).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기질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4(3), 49-72.
- 임효순, 이홍직(201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인적 특성, 업무 특성, 조직헌신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0(3), 29-40.
- 장미정(2021). **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직무스트레스 결정요인 비교분석 : 공직윤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정갑연, 박천식, 이시환(2018). 증권회사 직원들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21(4), 403-422.
- 정원식, 윤성준(2016). 지각된 기업 및 고객시민행동이 윤리적 기업태도와 윤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3(4), 27-51.
- 조재영(2018).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창조와 혁신**, 11(2), 1-27.

- 최승화, 오정희(2019).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원장의 감정적 리더십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457-476.
- 최공집, 정명규(2020).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회복탄력성,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8(4), 243-255.
- 최보람, 김진현(2018). 윤리적 의사결정 영향요인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2(1), 61-72.
- 최승국, 노영휘(2021). COVID-19 상황에서 직무불안정성,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체육시설 종사자의 조직지원인식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품질경영학회지**, 49(2), 183-200.
- 최형성(2015).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모형탐색: 소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2), 101-118.
- 추병완(2018). 초등 교사의 회복탄력성 요인 탐색. **윤리연구**, 121(1), 87-108.
- 표윤희(2019). 중등·중복장애학생 지도교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 간 영향 관계.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2(3), 129-155.
- 하제현, 최원석(2018). 중등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생활만족, 조직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3(1), 135-147.
- 한광현(2003). 직무의 내재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결과에 있어서 효능감(Efficacy)의 조절효과.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27(1), 33-57.
- 홍동욱, 이석준(2020). 태권도 사범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및 번아웃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311-321
- 홍은숙(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황연경(2015). **요양보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황요일, 황진수(2022). 상사의 행동특성의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대한 영향력 검증: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도덕정체성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37(2), 469-48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Daniel, B., & Wassell, S. (2002). *Adolescence: Assessing and promoting resilience in vulnerable children 3*.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17-528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rnezy, N. (1993).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arrido, L. E., Abad, F. J., & Ponsoda, V. (2016). Are fit indices really fit to estimate the number of factors with categorical variables? Some cautionary finding via Monte Carlo simulation. *Psychological Methods, 21*(1), 93-111.
- Judge, T. A., & Colquitt, J. A. (2004). Organizational Justice and Stress: The Mediating Role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3), 395-404.
- Luthe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3), 305-313.

26, 1-11.

- Parker, D. E., & DeCotiis, T. A. (1983).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160-177.
- Reivich, K., & Shatte, A. (2002).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Y: Broadway Books.
- Schermelleh-Engel, K., Moosbrugger, H., & Müller, H. (2003).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etho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line*, 8(2), 23-74.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Y: Free Press.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Werner, E. E., & Smith, R. S. (1993).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iemann, J. M. (1977). Explication and test of a mod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 195-213.

ABSTRACT

The interactive effect of resilience and work ethics consciousness on job stress among individuals working in sports facilities

Oh, Hyun-jun(Dongshin Univ.) · Jung, Myung-Kyu(Kyunghee Univ.) · Chung Sung-Pil(Dongshin Univ.)

This research was undertaken in light of the recently growing job stress of individuals working in sports facilities to address the critical need for in-depth discussions on stress reduction, coping mechanisms, and the development of mediation strategie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relied on the snowball sampling and a non-probability sampling to collect a sample of 450 participants using the online survey platform, Google Forms. Subsequently, after verify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sponses, a final sample of 360 participants was selected for analysis, and then, IBM SPSS 26.0 and IBM AMOS 21.0 were employed to undertak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measurement model analysis based 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the calculation obtained through Cronbach's α ,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interaction effect analysis using interaction terms for hypothesis testing. The findings from hypothesis testing and subsequent discussion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the research findings revealed that resilience has a negative impact on job stress among sports facility staff members. Second, work ethics exhibited a negative impact on job stress among individuals working in sports faciliti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resilience and work ethics on job stress among individuals working in sports facilities.

Key words : Resilience, Work ethics consciousness, Job stress

논문투고일 : 2023.09.30

심사일 : 2023.10.16

심사완료일 : 2023.11.06